

사도들의 위임의 회복

-아세르 인트레이터

예슈아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큰 비전과 과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 "위대한 위임"은 예슈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첫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위임은 제자 삼는 일(**마 28:18**), 복음을 전하는 일(**막 16:15**), 이스라엘에 나라를 회복하는 일 등을 포함합니다.

행 1:6 - "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행 1:8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유대적 뿌리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요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는 음식이나 절기 이상의 심오한 것입니다. 원래의 사도적 위임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메시아닉 (유대인) 남은 자들의 회복의 핵심적인 면입니다. 메시아닉 남은 자들의 회복은 사도들의 비전을 회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삭은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파고 그 우물들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창 26:18**). 그 우물들과 이름들은 아버지가 찾아낸 물로 돌아가는 수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우물들"과 "이름들"의 "유대적" 회복은 저희 "조상들"인 사도들이 찾아낸 구원의 물과 부흥의 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유대인"인 저희 조상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모두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었고 이중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와 히브리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제적인 장소에서는 헬라어 이름을, 이스라엘 안에서는 히브리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판 우물들은 지상의 메시아 왕국(행 1:3), 성령 세례(행 1:5), 세계 복음화(행 1:8), 문자적 재림(행 1:11), 마지막 때 세계적 부흥(행 2:17), 또한 만물의 회복(행 3:20) 등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다시 파는 것은 사도들의 비전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셨던 물을 이삭이 마셨던 것처럼, 저희도 사도들이 그 안에 행했던 기름 부으심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국영 방송국에서 제게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비전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가졌던 것과 똑 같은 것, 즉 열방 중에 평화가 있고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겐 족장들과 선지자들, 사도들로부터 내려 온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그 영적 유산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키바의 과수원

(요히 브랜다이스의 신간 소설)

안타깝게도 현재 이스라엘 베스트셀러 1 위 도서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성적 부도덕으로 오염시키는, 영국에서 온 음란 소설입니다.

놀랍게도, 이번 주 베스트셀러 2 위 소설은 정통 유대인 작가 요히 브랜다이스 Yochi Brandeis 의 독창적인 역사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허구이기는 하지만 학술 문서, 랍비 문헌, 신약 성경 등 광범위한 자료 연구에 근거한 것입니다.

소설 <아키바의 과수원>은 AD 132 년에 대로마 반란 때 바 코흐바 Bar Kochba 를 메시아로 선언한 유명한 랍비 아키바의 일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상당 부분은 아키바와 그의 멘토인 엘리에젤 벤 후르카노스 Eliezer

ben Hurkanos 랍비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몇몇 고대 유대 문헌은 그가 예슈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된 극은 예슈아를 믿는 믿음의 문제를 놓고 벌이는 이 두 대랍비 사이의 갈등입니다. 엘리에젤은 젊었을 때 어떻게 사울(바울)을 만났고, 예슈아께서 정말 메시아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는지를 아키바에게 말합니다. 브랜다이스는 예슈아의 죽음과 부활 이후 그 100년 동안 유대교 안의 몇 가지 사조의 발전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메시아닉 혹은 “나사렛파” 유대인들을 랍비 유대교의 후기 바리새파 출현에 필적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나사렛파는 부패한 사두개파 제사장 직을 거부한다는 면에서 일치했습니다. 바리새파 일부는 나사렛파에 호의적이었지만, 일부는 적대적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종교적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이 똑같이 나사렛파를 핍박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아키바는 미래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노프림”)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초자연적 환상을 봅니다. 아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노프림이 원래 나사렛파의 믿음을 부인하게 된다고 대답합니다.

브랜다이스는 예슈아를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1-2세기 유대교와 신약 성경의 배경, 초대 메시아닉 운동, 예슈아에 대한 믿음이 그 당시 종교적 유대인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에 대한 그녀의 묘사는 아주 연구를 많이 했으며 공정하고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때때로 번뜩이기까지 합니다.

하누카와 제임스 본드

(<에디올 아하로놀>신문 아릭 벤더의 글>

페레스 대통령, 네타냐후 총리와 모사드 Mossad의 파르도 Pardo 국장은 간단하게 진행된 하누카 행사를 맞아 올해 최고의 비밀요원 12명에게 “탁월한 업무 수행”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네타냐후는 그들에게 국제

테러에 대항한 전투의 최전방에 서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저는 최근 제임스 본드에 관한 <스카이폴 Skyfall>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일들은 영화 제작자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상을 받은 12명 중에는 유명하지만 익명인 여성 요원도 있는데, 그녀가 전 세계적으로 행한 십여 건의 첩보활동들은 (상관들의 묘사에 따르면) “머리가 쭈뼛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파르도는 이 비밀요원들에게 마카비 형제들의 정신으로 우리 시대의 “이적과 기적들”을 행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기도 제목

- 존 John O.와 로즈 Rose D.의 치유를 위해서
- 제네바 “더 콜” 이후 스위스에 부흥의 돌파가 있도록
- 요히 브란데이스의 신간에 대해 정통 유대인들 간에 활발한 토론이 있도록
-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총선에서 옳은 결과가 있도록
- 국제 언론과 지하드의 선전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거짓말들이 반박되도록
-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 명절 동안 유대 민족에게 빛이 되도록